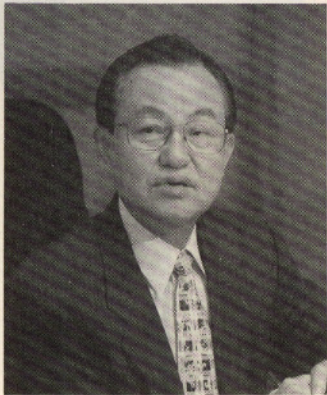


**현** 재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세계적 추세인 국제화·개방화와 기술경쟁을 배경으로 하는 고도화·정보화의 물결속에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전환의 시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부문에 있어 자율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경쟁원리의 적용 및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 건설업체와의 기술경쟁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경쟁력을 유지·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내 기술개발 및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를 직접 경쟁력 확보로 이어나가기 위한 전문기술력의 축적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에 요구되는 주요기술은 사업발굴(Project Finding)에서부터 기획, 타당성 분석(Feasibility Study), 설계, 시공, 유지관리를 까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엔지니어링 기술능력인 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프로젝트 관리능력의 배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단계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종합적 기술능력 배양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술개발을 통한 건설산업의 선진화는 우리 건설기술인의 시대적인 소명이며, 이를 위해 기술인 스스로가 연구개발의 주체가 되어 업무를 개선하고 창의적인 개척정신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시기를 같이하여 “건설기술/쌍용”의 발간은 미래 건설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술개발 촉진방안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기술/쌍용”의 발간이 자사 및 그룹 관계사의 기술개발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연구성과를 보급·확산시키는 매개로서 그 활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제 첫발을 내딛는 “건설기술/쌍용”의 발전을 위해서 각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절대적으로 당부하며, 각 부분의 기술개발 실적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더 큰 발전을 위한 각 부서 및 현장의 기술개발 의지들을 효과적으로 수렴하여 전 쌍용인의 기술력이 하나되게 하는 의사소통의 장으로서의 큰 역할을 당부하는 바입니다.